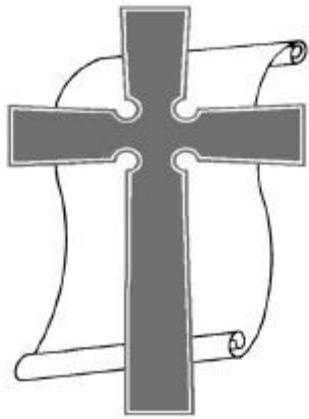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7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7회 총회

주 제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롬 14:7 하)

때 : 2002. 9. 9. ~ 13.
곳 : 서울 영락교회당

제87회 총회 회의록을 내면서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롬 14 : 17 하)라는 주제로 제87회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상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동역해 주신 전국교회 성도들과 총대, 총회 각 부서 및 기관, 노회 및 총회 산하 자치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는 꾸준하게 총회와 노회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총회, 사업노회”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 한해는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의 해로서 첫 발을 내딛고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구 지하철 참사’라는 큰 사건으로 온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를 갖게 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의 유가족들과 부상자들, 대구시민, 대구지역 노회와 교회 성도들

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전국교회와 총회 산하 모든 성도들이 사태 수습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총회와 교회의 관심을 더욱 고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가의 난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87회기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각 부서와 기관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교단 산하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되어 복음 전파 사역에 힘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총회의 귀중한 자료인 총회 회의록이 출판되기까지 수고한 총회 임원과 총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출판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3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최병곤**
서 기 **이용남**

가. 교리적 탈선

안상홍증인회는 안상홍을 재림주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신격화하는 등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일뿐 아니라 교리적으로 매우 잘못되었다.

나. 성경해석의 오류

안상홍증인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릇되어 해석하고 있다.

다. 구원관에 관하여

안상홍증인회는 계 13 : 8과 20 : 12에 기록된 생명책이 자기들에게 있으며 안상홍증인회에 등록하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또 구약의 율법, 특히 토요일 안식일과 유월절을 위시하여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정통이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성경적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상기 연구한 바와 같이 안상홍증인회는 교주를 신격화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잘못된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한편 그 뿌리가 되는 안식교의 교리를 떨쳐 버리지 못하는 등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단이다.

<연구보고서 3>

말씀보존학회에 대한 연구보고서

1. 들어가는 말

이송오 목사가 <한글킹제임스성경>만이 가장 잘 번역되었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잘못 번역되었다고 하여, 전자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고, 후자는 모두 사단의 책들이라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성경의 원본은 없어졌고, 결국 5,000개에 달하는 사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본들로부터 신약성경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이 여러 나라의 말들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에 관하여도 사본들 자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 사본 자체에 있어서, 사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번역과정에서 전혀 무오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점 일획이라도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 성경은 이단적이 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우리는 최소한도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연속성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중시한 예수님 자신의 말씀들과 사도들의 “복음”(apostolic Kerygma)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미 사본 이전 시기에 잘 전승되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경전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도적 전승이 사본선택의 표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이와 같은 사도적 전승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성경의 문헌비평적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의 중심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예수님에 의해서 설교되었고, 사도들에 의해서 설교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롬 1 : 1-4 ; 고전 15 : 1-11 ; 막 1 : 1 ; 눅 1 : 1-4 ; 행 8 : 40 ; 요 5 : 39 ; 요 20 : 31)¹⁾이 전승의 과정을 거쳐 기록되었고, 이것이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화되었다. 이 종말론적 복음이 성경의 기원이요 성경의 통일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강림 사건이 없었더라면, 성경의 경전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경전인 신구약성경에서 발견된다.²⁾ 이와 같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지닌 성경은

- 1) 참고 : C. H. Dodd의 The Apostolic Preaching의 부록 도표에 나와 있는 사도적 케류그마에 대한 성경구절들.
- 2) 참고 : 1963년 몬트리올 신앙과 직제, Called to Witness to the Gospel Today, WARC Blue series No. 1, Confessions and Confessing in the Reformed Tradition Today, WARC Blue series, No. 2, 제2 바티칸의 Dei Verbum, 이형기, “복음과 성경”, 21세기 한국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 pp.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경은 성서신학 및 나머지 모든 신학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근거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경적 거대담론(the biblical metanarrative : 창조, 타락, 이스라엘의 구속을 통한 인류구속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사건(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강림의 사건, 교회, 그리고 종말론적 완성)의 절정으로서 성경전체를 통일시키는 구속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 특수 구속의 드라마는 인류의 보편적 드라마를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창조, 타락, 구속, 이스라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성령의 강림, 교회 그리고 종말론적 완성은 성경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이다. 바로 이 창조와 구속과 종말의 드라마에 하나님의 인류와 우주만물을 향하신 목적이 계시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의 구속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성경의 통일성)고 하는 주장은 신약성경의 성경구절들은 물론, 사도신경과 교부들의 “신앙규범”(regula fidei)³⁾ 및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령의 수직적인 역사에 의하여 기독교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되고 있다.

그리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 구원(이신칭의)을 받고,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 사랑과 정의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경의 다양한 메시지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의식하고, 나아가서 21세기의 상황을 분석하여 성경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의 상황에 걸맞게 선포하고 행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의 생동성과 역동성(viability and dynamics)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사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시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대응하여 해석하고 선포하고 행하였다면(물론 공관복음서들도 일정한 상황들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 역시 단순히 사도적 복음을 단순히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21세기 상황, 무엇보다도 한국적인 상황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a single metanarrative in the Bible)과, 다양한 메시지들과 다양한 명제적 진리들은 상호 의미 연관의 관계 속에 있다. ⁴⁾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전승에 조명하여 나머지 성서적 메시지들과 진리들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고, 후자의 이해와 해석에서 출발할 경우에도 전자에 도달해야 한다. 예컨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들, 하나님에 대한 은유들(아버지, 주님, 목자 등), 기타 작은 이야기들과 비 담화적 내용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그의 성육신, 삶, 교역활동,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야기로서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small stories) 및 다른 장르(시편, 지혜서, 문학, 예언서, 서한, 묵시서 등)로 표현된 글들의 의미와 가치와 진리성의 특수성을 억압하지 않고 살려내면서, 그것을 통전시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서적 거대담론은 결코 성서 내의 미시적인 목소리들을 결코 억압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과 사건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작되어 갈등상황을 거쳐서 대단원에 이른다고 하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해석학적 원리에 더하여, 성서 해석자는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안에서 구약이 계시된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라서 신약을 바라보면서 구약을 해석해야 하고, 구약과의 연속성상에서 신약을 해석해야 하며, 나아가서 신약만의 유일 무이한 비전과 진리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성경이 성경 자체의 해석자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구절들과 단락들 상호 간에 상호 조명하고 보충하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신약성경의 특수성과 특히 성경의 “단 하나의 거대담론”(a single metanarrative

83ff..

3) 참고 : 이것은 이레네우스, 터틀리언 및 오리겐 등 고대 교부들이 정식화한 사도적 신앙의 요약으로서 사도신경의 내용과 대동 소이하면서, 이것보다 더 간결한 내용인데, 이들은 이로써 이단에 대처하였다.

4) The Bible : Its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in The Ecumenical Movement, Faith and Order Paper No. 99.

in the Bible)을 지향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거대담론은 결코 성서의 다양한 소리들을 억압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전체화하는 폭력 혹은 보편화하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 또한 신약의 해석자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핵심 메시지로 갖고 있는 공관 복음서들과 사도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관 복음서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이지만 말이다.

우리는 말씀설교, 성경공부, 세례와 성만찬, 기도, 성도의 교제, 카리스마타 등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 인간 및 자연과 새로운 관계 속에 돌입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해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움과 외경을 느끼고, 하나님 존전에서 자신의 용납을 기뻐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의는 설 자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justification by faith).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성령의 전의 구성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덕목들로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아, 다양한 교역(ministries)을 교회 안과 밖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 성령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사, 하나님을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실 영광나라의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명제적 진리들에 의해서 매개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생긴다는 말이다. 이 때 믿음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주된 열매이다.

“한글킹제임스성경”만이 구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말씀이고, NIV, NASB, RSV, NEB, GNB, JB, LB, NRSV 등을 한글개역성경과 더불어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사단이 변개한 것”이라고 주장한 “말씀 보존학회”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KJV만을 정통으로 보고 나머지 성경들을 이단으로 보는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⁵⁾ 성서공회가 인정하는 대부분의 번역성경들은 사본비평 차원에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모두 한결같이 위에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거대담론”을 성경의 통일성으로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송오 목사가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성경”과 기타 대부분의 번역된 성경들이 사본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번역 상의 오류들이 발견될 수 있을지라도, 성경의 주제에 관한 한 무오류하다고 판단된다.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초기의 권위 있는 사본들이 사도성을 그 선택의 표준으로 선택되었으니, 이 사도성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의 사도적 신앙내용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도 좋다는가 성경전체가 영감된 문서(딤후 3 : 15, 16)가 아니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신구성경의 말씀들은 영감된 문서로서 진주알들 같고, 이미 지적인 성경의 주제는 이 진주 알들의 모음 이상의 무엇이라. 따라서 이단이 아닌 번역성경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송오 목사의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orthodox)이 결코 아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으로 Biblia Hebraica Kittel과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신약으로는 네슬레·알란트의 Novum Testamentum Graece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The Greek New Testament”⁶⁾를 사용하여 가장 정확한 번역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송오 목사의 번역성경이나 기타 영문번역성경들에서도 잘못 번역된 말씀들을 찾아내야 하고, 문헌비평을 통해서 최선의 본문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번역성경에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위에서 지적인 성경의 주제가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이단적인 성경”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이다.

5) 참고 : 현대종교(서울 : 현대종교사, 1995), 특집 I, “말씀보존학회”, p. 33

6) Ibid, p. 45.

